

【논문】

“지성의 교정”(emendatio intellectus)과 스피노자의 베이컨주의*

김은주

【주제분류】 근대 철학, 인식론, 윤리학

【주요어】 지성, 교정, 베이컨, 이상, 방법, 윤리학

【요약문】 이 글은 방법에 대한 스피노자의 미완성 논고 “*De emendatione intellectus*”의 제목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라틴어 ‘emendare’는 일차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다’를 뜻하는 반면, 스피노자에게서 지성은 진리의 기관, 심지어 참된 인식 자체이므로, 이 제목은 모순적이다. 이 글에서 나는 “지성의 교정”이 단지 스피노자 사상의 미성숙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지성의 추상성을 경계하고 개별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지향하는 베이컨주의의 적극적인 전유를 표시하며, 나아가 인식론의 문제를 결국 윤리학에 귀착시키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나는 지금까지 채택되어 온 “지성개선론”이라는 번역어를 “지성 교정론”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옹호하고 그 문헌학적, 철학사적, 그리고 체계상의 이유를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학술논문 게재 지원을 받았다.

I. 들어가며

스피노자는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 많은 글을 남기지 않았다. 생전에 출판된 글, 따라서 그 자신이 보기에 완성된 글은 단 둘 밖에 없다. 하나는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에 대한 해제인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1663년)이고(1664년 네덜란드어 번역본 출간), 다른 하나는 라틴어로 집필되고 익명으로 출간된 『신학-정치론』(1670년)이다. 『윤리학』과 미완의 『정치론』 및 *De intellectus emendatione* (이하 『지성 교정론』)은 스피노자가 죽은 해(1677년)에 스피노자의 친구들이 엮은 라틴어 유고집 *Opera posthuma*와 네덜란드어 번역본 *Nagelate Schriften*을 통해 처음 출판되었다. 유고로 출판된 만큼 이 글들은 적어도 저자의 눈에 완성된 글이 아니다. 다만 『윤리학』은 스피노자가 적어도 출판을 시도했고(1675년) 정황적 이유(『신학-정치론』 출간 이후의 여론) 때문에 출판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완으로 볼 수는 없다. 『정치론』도 분명 미완이긴 하지만, 스피노자의 완성된 정치사상은 물론, 형이상학의 최종 형태를 담고 있다고 인정된다. 『지성 교정론』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 이 논고는 그의 독자적 사상이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집필되기 시작했고 결국 포기된 글이다.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스피노자 사상에 충실한 글로 볼 것인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¹⁾

이 문제는 이론 체계상의 측면과 스피노자 사상 형성사의 측면, 그리고 철학사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왔다. 이 세 측면은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론 체계상의 측면은 주로 『윤리학』과의 비교를 통해,²⁾ 스피노자 사상 형성사는 『소론』과의 시기상의 전후 관계 문제로 다루

1) 특히 『지성 교정론』을 『윤리학』 앞에, 그리고 『소론』 뒤에 위치시키는 켈하르트 이래의 전통적 해석을 뒤엎고, 그것이 『소론』에 선행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미니니는 이 논고 방법에 대한 논고이긴 하지만 단지 철학 입문이었다기보다는, 형성 중에 있던 스피노자 사상의 독립된 표현, 스피노자 철학의 “한 시기”(un moment)였다고 말하면서, 이 논고의 미성숙성을 더 부각시킨 바 있다(2001, p. 18).

2) 대표적으로 Gueroult (1974), pp. 593-608; Matheron (2011a), (2011b); Mignini (2001)을 참조하라.

어져왔다.³⁾ 마지막으로 철학사적 연구는 이 논고에 영향을 미친 세 선형 철학자 베이컨, 데카르트, 홉스 가운데, 용어에서부터 지성관에 이르기까지 이 논고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친 데카르트, 특히 그의 미완의 방법 논고인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이하 「규칙」)과의 관련 하에 이루어져왔다.⁴⁾ 이 글에서 나는 이 세 측면 중 철학사적 측면을 다루되, 지금까지 주되게 조명되어 온 데카르트적 측면이 아니라 그 정반대 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베이컨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베이컨의 영향은 논고의 제목 ‘emendatio intellectus’에서 가장 뚜렷이 감지된다. 그러나 이 제목은 논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emendare’는 일차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다’를 뜻하지만, 스피노자에게서 지성은 진리의 기관, 심지어 참된 인식 자체이므로, 교정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목을 논고 집필 당시 스피노자 사상의 미성숙의 표시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⁵⁾ 게다가 앞서 말한 세 선형 철학자 가운데서도 베이컨의 영향은 성숙기 스피노자 사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더욱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지성의 ‘완전화’에 상응하는 단어나, 아니면 적어도 데카르트처럼 정신의 ‘지도’(directio)라는 표현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굳이 이 제목을 택한 이유가 단순한 미성숙 때문은 아닐 듯하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본문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정신을 지도하다/이끌다”(mentem diriger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⁶⁾ 그럼에도 그가 굳이 ‘emendatio’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논고의 미완성 이유의 문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다루기로 하고, 이와는 별개로 나는 “지성의 교정”이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다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표현은 단지 스피노자 사상의 미성숙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3) 대표적으로 Mignini (1987), (2001), (2009)를 참조하라.

4) 이를 주체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Sánchez Estop (1987)을 참고하라.

5) Appuhn (Spinoza, 1964, pp. 171-2); Eisenberg (2001); Mignini (2009) p. 37.

6) § 38, § 40, § 43을 보라. 그 외 “사유들을 이끌다”(cogitationes dirigere)는 § 49와 § 105를 보라. *단락 번호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Bruder 판본 번호를 따르며, 『지성 교정론』 외국어 번역본은 주로 Koyré 라틴어-불어 대역(Spinoza, 1994)과 Mignini에 의해 수립된 Beyssade 라틴어-불어 대역(Spinoza, 2009)을 참조했다.

지성의 추상성을 경계하고 개별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지향하는 배이컨주의의 적극적 전유를 표시한다는 것, 나아가 인식론의 문제를 결국 윤리학에 귀착시키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부수적으로, “*De emendatione intellectus*”라는 제목이 설령 스피노자 고유의 사상과 거리가 있을지라도 스피노자의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그것을 “지성의 개선론”이 아닌 “지성 교정론”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국내 스피노자 연구가 진태원의 제안⁷⁾도 철학사적 측면을 통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II. 제목을 둘러싼 의문들

1. 제목과 관련된 문헌학적 문제와 답변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리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 논고의 작성 시기 및 이와 연관된 검토 가치의 문제이다. 서론에서 말했듯, 이 논고의 미완성을 둘러싼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논고를 스피노자의 독자적 사상이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형성되었다가 단순히 포기된 초기 글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은 유념해 두어야 한다. 우선, 『윤리학』과의 교설상의 동질성이나 이질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스피노자가 보우메스터(J. H. Bouwmeester)나 취른하우스(E. W. Tschirnhaus) 등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가 어쨌든 성숙기까지 논고의 내용에 대체로 만족했음을 보여준다.⁸⁾ 둘째, 지인들이 쓴 논고의 일러두기와⁹⁾ 그가 지인들과

7) 뒤의 주 16을 참조하라.

8) 보우메스터에게 보내는 편지 37(1666년, 6월)에서 스피노자는 『지성 교정론』의 주요 테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즉 지성은 신체와 달리 온, 곧 외적 원인들에 종속되지 않으며 명석 관명한 관념들을 형성할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성과 상상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675년 취른하우스는 스피노자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잘 이끌기 위한 당신의 방법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편지 59) 이는 둘이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교환했고, 취른하우스가 스피노자의 방법 논고가 곧 출판되리라 기대할 이유가 있었음

주고받은 편지는,¹⁰⁾ 스피노자가 글을 완성하려는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거의 생애 말엽까지, 수정 작업을 계속했음을 입증한다.¹¹⁾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려는 제목의 문제는 스피노자의 성숙기 사상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다른 하나는 논고 제목의 출처이다. 혹자는 이 논고의 제목이 스피노자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보우메스터는 이 논고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것 같고, 분명 이 논고를 읽어보았을 취른하우스는 이것을 단지 “방법”에 대한 글이라고만 칭한다.¹²⁾ 더구나 라틴어 유고집 부제와 네덜란드어 판본의 부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¹³⁾ 제목은 스피노자 자신이 아니라 라틴어 유고집 서문을 쓴 엘레스(J. Jelles)와 메이어(L. Meyer)를 비롯한 유고집 편집자들이 붙였을 수 있다. 단 유고집 외에 “*De emendatione intellectus*”라는 제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1678년 4월 10일 취른하우스가 라이프니츠에게 쓴 한 편지에서이다. 물론 이 때는 라틴어 유고집이 출판되어(1677년 12월) 배포되기 시작한 때(1678년 1월)로부터 석 달 이상이 이미 흐른 이후이므로, 제목의 출처가 유고집 편집자들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취른하우스는 당시 이탈리아 여행 중이었고, 유고집 복사본은 아직 입수하지 못한 채 이전에 술러에게서 건네받은 수고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따라서 이 편지는 이 논고가 유고집 이

을 시사한다.

- 9) “그는 이것을 완성할 뜻을 늘 품고 있었으나, 다른 업무들로 인해, 그리고 결국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탓에, 원하는 결말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 10) 앞의 주8을 참조하라. 취른하우스의 위의 답변에 대해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다른 문제들, 즉 운동과 방법에 대한 것들은 아직 좋은 순서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회로 미루겠습니다.”(편지 60)
- 11) Auffret (1992)에 따르면, 『지성 교정론』의 최초의 핵은 『소론』보다 앞서 작성되었을 수 있지만, 이후 스피노자가 계속해서 새로이 개입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이 가설은 『지성 교정론』을 스피노자 사상 진화의 특정 시기에만 해당되는 저작이 아니라 그의 지적 경험 전체와 동반하는 저작으로 간주하게 한다.
- 12) 앞의 주 8과 10을 참조하라.
- 13) 라틴어 유고집의 부제는 “지성을 사물의 참된 인식으로 이끄는 최적의 길에 대하여”이며, 네덜란드어 판본의 부제는 “동시에 지성을 완전하게 만드는 길”(en te gelijk van de middel om het zelfde volmaakt te maken)이다.

전에 이미 이 제목을 갖고 있었다고 짐작하게 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역시 간접적이지만 의미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증거는 편지 6에서 스피노자 스스로 이 논고를 두고 “지성의 교정”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고 진술한다는 점이다.

사물들의 기원 및 그것들을 제 1 원인에 결부시키는 연관에 대한 당신의 새로운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이 주제에 대한, 또한 지성의 교정에 대한 [*de emendatione intellectus*] 별도의 저작을 [*integrum opusculum*]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술하고 교정하는 일에 [*emendatione*] 집중하고 있습니다. (G IV, 36b)

이런 정황상 제목은 스피노자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더구나 적어도 논고의 초반부에서도 스피노자는 지성을 ‘교정하기’(*emendare*) (§ 18)는 물론이고, 지성을 ‘정화하기’(*expurgare*)나 ‘치유하기’(*mederi*) (§ 16)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emendatio*’라는 단어의 사용이 스피노자의 의도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제목의 우리말 번역 문제이다. ‘*emendatio*’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 ‘개선’으로 번역되어 왔다. 이것은 1930년 일본의 이와나미 문고에서 나온 『지성개선론』의 번역에 따라 채택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언어권에서 주로 채택되어 온 번역어와도 부합한다(네덜란드어 *Verbetering*, 스페인어는 *Reforma*, 영어 *Improvement*, 독일어 *Verbesserung* 혹은 *Vervollkommnung*). 그러나 ‘*emendatio*’는 ‘개선’만이 아니라, 정화, 교정, 치유의 뜻도 가지고 있다. ‘개선’과는 달리 이 두 번째 단어군은 병이나 악의 제거라는 함축을 가지며, 이것이 더 일차적 의미이기도 하다.¹⁵⁾ 그런데 이 후자군 내에서도 ‘정화’와 ‘치유’는 각각 ‘*expurgare*’와 ‘*mederi*’라는 상응하는 다른 라틴어 단어가 논고 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 그러면 남는 것은 ‘교정’이라는 단어이

14) 이는 Steenbakkers (1994), pp. 38-39의 주 2를 참조했다.

15) Einsberg(2001, pp. 318-321)는 ‘*emendatio*’를 ‘개선’, 곧 “지혜의 정정”에 접근하는 진보의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정화일 것이라 본다. 물론 정화도, 개선도, 스피노자의 지성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다른 언어권에서도 ‘개선’과는 별도로 ‘교정’에 상응하는 계열의 단어들
 들이 채택되기도 했다. 독일어 ‘Berichtigung’ (교정), ‘Läuterung’ (정화),
 영어 ‘amendment’가 그렇다. 특히 현재 영어권의 표준 번역으로 통하는
 켈리 번역본(Spinoza, 1985)에서 이전까지 주로 쓰인 ‘improvement’ 대신
 ‘emendation’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진태원이 한 주석서 번역의 역주¹⁶⁾에서 “지성 교정론”이라고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emendatio’를 통해 스피노자가 “단순히
 지성의 능력을 좀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린다는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부, 명예, 성적 욕망)이나 상상에 의해 ‘분열되고 혼
 란에 빠진’ 지성의 구조, 형태를 바르게 세우려는 저술의 목적을 분명히 하
 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논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있
 다가 논하기로 하고, 결론 자체는 이 단어에 대한 스피노자의 용법에 의해
 지지된다. 이 단어는 논고 안에서 “거짓 관념의 교정” (§ 67)이나 “의심의
 교정”, “고집의 교정”(§ 77)과 같이 실제로 ‘교정’의 의미로 사용되며, 앞
 서 인용한 편지 6의 구문에서도 스피노자는 이 논고 자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 ‘emendare’를 이 논고의 수정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2. 제목과 스피노자 사상의 불일치 문제

문제는 “지성의 교정”이라는 표현이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소
 위 합리론의 입장은 물론이고 스피노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모순적인
 표현이라는 점이다. 진태원이 말하듯, “세속적인 욕망과 상상에 의해 분
 열되고 혼란에 빠진” 것이 정신일 수는 있어도 지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성은 교정의 대상으로도, 개선과 완전화의 대상으로도 보기 어
 렵다.

우선 『윤리학』에 따르면, 지성은 ① 신의 무한지성(1부 정의 4, 정리
 16; 2부 정리 7의 주석, 정리 11의 따름정리)을 가리키거나, ② “지성을 따

16) 마슈레 (2004) p. 32의 역주 21.

르는 질서대로”(secundum ordinem ad intellectum)라는 어구 속에 쓰여, **참된 것 자체**(2부 정리 18의 주석, 정리 40의 주석 2, 5부 정리 10, 정리 38의 증명), ③ **인간 정신의 영원한 부분**(5부, 정리 39의 주석, 정리 40의 증명)을 가리킨다. 그 밖에도 지성은 이성과 동일시되거나(4부, 부록 4장), 정서를 제어하는 인간 역량의 출처(5부, 정리 42의 증명)로 간주된다.¹⁷⁾ 더 근본적으로, 적합한 인식과 부적합한 인식은 인식 능력의 문제나 인식 능력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외부의 것들과의 관계에서 갖는 능동성이나 수동성의 문제이며, 지성은 이 능동성을 압축하는 이름에 불과하다. 아울러 『윤리학』에서, “인식하는 능력(*facultas*)”을 뜻하는 한에서의 지성은 “순전히 허구적”인 것 혹은 “형이상학적 존재자, 곧 우리가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습관적으로 형성하는 보편자들”(2부, 정리 48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점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즉 의지가 개별적인 의지작용들에 다름 아니듯, 지성도 **개별적인 관념들**을 가리킨다(2부, 정리 49의 따름 정리의 증명). 그러므로 “지성의 교정”이라는 발상은 지성과 정신을 혼동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한 편지에서 스피노자 자신이 바로 이 점을 들어, 지성을 정화와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베이컨을 비판한 바 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결함을 묻는 올덴부르크의 질문(편지 1)에 대해 스피노자는 특히 베이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편지 2).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 지성은, 첫째, 우주를 척도로 해서가 아니라 자기 본성을 척도로 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면서 본성상 오류를 저지를 운명이다. 비유컨대, 지성은 광선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하여 사물을 왜곡하는 거울과 같다.¹⁸⁾ 둘째, 지성은 자연적으로 추상화

17) 물론 『윤리학』에서도 지성이 전통적인 의미대로 사용될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의미의 전용을 의도하는 경우(1부, 정리 17의 주석, 정리 30, 31; 2부 정리 38과 39)가 대부분이다.

18) 이는 베이컨 『신기관』에서 종족의 이상 관련 항의 다음 표현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 감각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거짓이며, 정신의 감각만이 아니라 정신의 모든 지각이 우주를 척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척도로 한다. 그리고 인간 지성은 광선을 불규칙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본성과 뒤섞음으로써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고르지 못한 거울과 같다.”(1권, 41항) 또한 『거대한 시작』의 다음 표현도 참조하라. “인간 지성이 고르다면, 그리고 빈 서판과 같다면, 그들은 그 자체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사물의 진정한 광선을 반영할 참되고 고른 표면이 없을 정도로 [이상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시적인 존재 양식에 불과한 것을 불변의 특성으로 취급한다.¹⁹⁾ 셋째, 지성은 유동적이어서 고정되지 못하고 정지할 수 없다.²⁰⁾ 넷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데카르트가 말하듯,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고 지성보다 더 넓다는 것, 혹은 “더 혼동된 언어로 베를람 자신이 말하듯이, 지성은 건조한 빛이 아니라 의지에 젖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²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피노자는 특히 베이컨이 **지성과 정신을 구별하지 않고서 지성이 본성상 기만당한다고 오해**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사실, 스피노자가 지적한 사항들은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 중 ‘종족의 우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우상들과 비교해서 종족의 우상이 갖는 특징은 그것이 지성에 본유적이라는 점이다.²²⁾ “지성의 교정”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베이컨적 지성관을 집약하는 표현이다.²³⁾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왜 “지성의 교정”이라는 표현을 채택했을까? 더욱 이상한 것은 방금 본 편지 2는 『지성 교정론』 집필이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²⁴⁾ 그러니까 『지성 교정론』 집필

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치유책 역시 찾아야 한다.” (*Distributio Operis de l'Instauratio Magna* 중)

- 19) “인간 지성은 본성상 추상으로 기울며, 유동적인 것들을 마치 항상적인 양 꾸며낸다. 그러나 자연은 추상하는 것보다 나누는 편이 더 낫다.” (『신기관』, 1권, 51항)
- 20) “인간 지성은 확산적이다[*gliscere*]. 그것은 멈추거나 정지할 수 없으며 헛되이도 늘 더한 것을 추구한다.” (같은 책, 1권, 48항)
- 21) “인간 지성은 마른 빛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들이 삼투되어 있다...감정들이 지성을 물들이고[*imbuere*] 감염시킨다[*inficere*].” (같은 책, 1권, 49항)
- 22) 더 자세한 논의는 Deleule (1997)을 참조하라.
- 23) 이 단어는 스피노자가 발생적 정의에 대한 발상을 가져온 텍스트이기도 한 흄스의 *Examinatio et emendatio mathematicae hodiernae* (오늘날 수학에 대한 검토와 교정) (1660년)에서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고 전체로 볼 때 이 표현은 지성의 정화나 치유, 교정을 역설한 베이컨의 관점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
- 24) 편지 5는 『지성 교정론』에 대해 스피노자가 처음으로 언급하는 곳인데, 이 편지의 작성일은 쓰여 있지 않다. 다만 편지 5가 1661년 10월 21일자로 되어 있고, 스피노자의 편지 6에 대한 답장인 편지 7에서 올텐부르그가 영국왕립학회 현장 발표(1662년 7월 15일)를 언급하고 있으며, 서두에서 스피노자의 편지를 수 주 전에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지성 교정론』은 1662년 상반기(1662년 4-5월)에 어느 정도 집필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베이컨과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을 담은 편지 2가 쓰인 해는 1661년이다.

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형태로 이루어지기 전에, 스피노자는 지성을 교정 대상으로 보는 베이컨에 대해 이미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논고 자체를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지성의 병과 일탈을 함축하는 표현들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지성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서 어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지성의 교정은 강력한 인간 본성이라는 최고선(목적)에 이르기 위한 목표로서만 언급될 뿐이며, 이 경우에도 ‘교정’보다는 ‘강화’나 ‘완전화’의 의미가 더 강하다.²⁵⁾ 다음으로, 논고는 흔히들 인식 능력의 문제(가령 오류)로 다루는 것을 ‘지각하는 방식’(modus percipiendi)의 문제로 다룬다. 그것도 보편적인 방식의 자격으로서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 사용해왔던 모든 지각 방식”으로 말이다. 이런 지각 방식으로 네 가지가 열거되며 이것이 감각 능력이나 상상력(첫 번째, 두 번째 지각 방식), 지성(세 번째, 네 번째 지각 방식)과 같은 전통적인 인식 능력들에 대한 기술을 대체한다. 그런 후, 뒤로 가면서 지성은 “참된 것” 자체와 동일시되며(§ 68),²⁶⁾ 그 외 참된 사유의 형상이 연역되는 원천(§ 71), 기억이나(§ 82) 상상과는 명백히 다른 것(§§ 84, 87, 90)으로 규정된다. 사용된 용어와 별개로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윤리학』의 관점과 위배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베이컨 사상에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스피노자가 베이컨의 관점을 집약하는 표현을 제목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리학』과 달리 이 논고가 방법에 대한 것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우리는 ‘지성의 교정’이라는 표현이 **방법과 관련된 일반적 토픽**을 표현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²⁷⁾ 더 나아가, 베이컨의 한계를 이미 자각하고 그와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컨 사상의 **적극적인 면을 전유**하고자 했던 스피노자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가설 역시 세울 수 있다. 만일 이 두 가설

25) “지성이 사물들을 오류 없이 쉽게 그리고 최상으로 이해하도록, 지성을 치유하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한, 지성을 정화하는 것”(§ 16); “이 목적을 따르는 데 유의하고 지성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는 데 힘쓰며”(§ 17); “지성을 교정하고, 지성이 사물들을 우리가 우리 목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알맞게 만드는 일”(§ 18).

26) “참된 것 혹은 지성”.

27) 미니니에 따르면 “*emendatio intellectus*”는 “*medicina mentis*”와 등가어이다. (Mignini, 2007, p. 28)

중 어느 하나라도 맞다면, 설령 스피노자 고유의 철학적 입장에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목을 “지성의 교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나아가, 『윤리학』에서 ‘인식론’의 문제가 결국 ‘윤리학’의 문제로, 참된 인식의 문제가 결국 지성의 교정은 아니지만, **상상과 정념의 교정 혹은 치유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을 고려해보자. 그러면 “지성의 교정”이라는 발상이 이와 같은 『윤리학』의 기획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가설 역시 세울 수 있다.

아래에서 나는 이 세 가설 모두가 지지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즉 “지성의 교정”이라는 제목을 통해 스피노자는 방법과 관련된 일반적 토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베이컨 사상의 적극적 면을 전유하고자 했고, 이런 ‘교정’의 문제의식이 『윤리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Ⅲ. 지성의 교정과 방법, 그리고 윤리학

1. 베이컨주의의 긍정적 전유: 지성의 추상성에 대한 경계

정신의 의학적 치유라는 발상은 스토아 학파를 비롯하여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사법일 뿐만 아니라 당대에 널리 퍼진 생각이다. 하지만 특히 지성이 우상으로 뒤덮여 있어 사물의 본성을 자신의 본성과 뒤섞으면서 **본래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성향(우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베이컨의 생각이다.

미니니²⁸⁾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지배적인 지적 배경이 되기 이전, 베이컨은 당시 홀란드에서 새로운 철학의 대명사, 철학하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이는 호이겐스와 이삭 베크만의 아주 호의적이고 거의 경탄에 가까운 태도로 드러난다. 심지어 데카르트도 베이컨을 비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델로 취했다고 할 정도이다. 스피노자 역시 베이컨을 진지하게 읽었음은 확실

28) Mignini (1997).

하다. 앞서 인용한 편지 2에서 그는 베이컨을 비판하지만, 비판 내용은 그가 베이컨을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를 방증한다. 더구나 편지 장르의 특성상, 이 비판이 베이컨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곧바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 그의 비판적 진술은 베이컨과 데카르트 철학의 오류가 무엇 이냐는 올덴부르크의 물음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²⁹⁾ 이후에 스피노자는 적어도 두 편지에서 그 스스로 베이컨을 언급하는데, 거기서는 방법상으로 뿐만 아니라³⁰⁾ 내용상으로도³¹⁾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보아 그가 베이컨을 진지하게 읽었고 적어도 같은 진영의 철학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고는 이 편지들 이전에 집필되기 시작했으니만큼 베이컨을 적극적으로 참조했다고 해도 놀랄 것은 없다. 데카르트에 대한 참조의 핵심이 감각적 인식에 대비되는 지성적 인식(직관과 연역)의 확실성에 있다면, 베이컨에 대한 참조는 지성에 의한 추상적 인식에 대한 경계로 요약될 수 있다. ‘정화’나 ‘치유’ 같은 표현들 외에도³²⁾ “무작위적 경험(*experientia vaga*)”³³⁾을 필두로(§ 19)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베이컨적 어휘는 물론이

- 29) “당신은 또한 제가 데카르트의 철학과 베이컨의 철학에서 어떤 오류를 목도하는지 묻습니다. 타인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제 방식은 아니지만, 원하신다면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G IV, 8)
- 30) “이를 적어도 방법이 요구하는 만큼은 이해하려면, 정신의 본성을 그 제 1원인을 통해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신의 혹은 지각의 히스토리아를 베이컨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수립해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1666년 보우메스터에게 보내는 편지 37: G IV, 189)
- 31) 올덴부르크(혹은 그를 매개로 한 보일)와의 편지 13(1663년 7월)에서는 베이컨과 데카르트에 대한 보일의 암묵적 비판에 맞서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보일 자신처럼] 이 철학자들 역시 현상을 그들 이성에 합치시키고자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다면, 그들도 말하자면 인간이며, 인간적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낯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 IV, 67)
- 32) 지성 혹은 정신의 ‘정화’(*expurgare*)라는 표현은 『신기관』 1부 61항(지성의 정화), 68항(지성의 해방과 정화), 69항(정신의 속죄*expiatio*와 정화), 115항(정신의 정화와 청소, 고르게 하기), 2부 32항(자연사의 사례들을 통한 지성의 정화)을 참조하라. ‘치유’(*mederi*)라는 표현은 같은 책 1부 59항(시장의 우상, 곧 언어가 낳는 악의 치유)을 참조하라.
- 33) 이 표현의 베이컨적 기원과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Klever (1987), pp. 102-104를 참조하라.

고,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공리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75, § 99), 경험의 보조물을 통한 관찰과 실험의 조직에 대한 언급(§ 103)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베이컨적 준거의 비중은 이와 같은 명시적 표현들에서보다도 오히려 논고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더 크게** 드리워져 있다. 네 가지 지각 방식(modus percipiendi) 가운데 참된 인식의 시작이 될 추론적 인식(세 번째 지각 방식)의 애매한 지위가 그것이다.

세 번째 지각 방식은 “한 사물의 본질이 다른 사물로부터 도출되되, 적합하지 않게 도출될 때의 지각”으로, “이는 우리가 어떤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할 때, 또는 어떤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도출될 때—보편적인 것은 항상 어떤 특성을 동반하므로— 일어난다.” (§ 19) 표현의 복잡성을 비롯하여 이 지각 방식에 대한 스피노자의 제시 내용에는 여러 애매성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지각 방식과 진리와의 관계이다.

이 지각 방식은 『소론』의 두 번째 인식 방식인 “올바른 믿음”에, 그리고 『윤리학』의 세 종류의 인식 중 2종의 인식, 곧 이성(공통관념)에 의한 인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참된 이성”에 의한 믿음이고, 2종의 인식이 3종의 인식과 더불어 “적합한” 인식에 속하는 반면,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지각 방식은 사물의 본질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면서도, 적합하지는 않다.³⁴⁾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 참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윤리학』에 따르면, 참됨과 적합함은 동일한 사태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뿐이기 때문이다(2부, 정의 4). 곧 참됨이 관념과 사물의 일치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참된 관념의 외적(extrinsecus) 측면을 가리킨다면, 적합함은 내적(intrinsecus) 측면을 가리킨다.³⁵⁾ 참됨은 적합함의 결과일 뿐이다.

세 번째 지각 방식의 이런 한계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이 지각 방식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하거나,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도출하는 방

34) Joachim의 표현을 따르면, 『소론』의 올바른 믿음의 “올바름”이 결여되어 있고, 『윤리학』에서의 2종의 인식이 갖는 “적합함”(adaequatus)이 결여되어 있다. Joachim (1940), p. 28을 참조하라.

35) 다음 역시 참조하라. “이런 외적 관계를 제외하면 참된 관념과 적합한 관념 사이에는 아무런 실제적 차이도 없습니다.” (편지 60: G IV, 270)

식이다. 전자의 경우 결과 안에 있는 것 외에 원인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후자의 경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후자의 사례로 스피노자는 시각의 본성과 한 사물이 멀리서 더 작게 보인다는 특성으로부터 태양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고 추론하는 경우를 드는데, 그가 정확히 어떤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³⁶⁾ 다만 『성찰에 대한 반박과 답변』에서 바로 이 사례를 두고 흄스와 가상디의 유물론적 혹은 경험론적 비판과 데카르트의 합리론적 답변이 오갔고, 스피노자가 이를 읽었으리라는 점³⁷⁾을 감안해보면,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지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태양에 대한 두 가지 관념, 곧 감각적 관념과 천문학적 지식(곧 본유 관념)에 근거한 관념이 있음을 주장했고,³⁸⁾ 흄스와 가상디는 본유 관념의 존재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비판적 태도는 세 번째 지각 방식이 오류의 위험이 없다고 보는 동시에 오류에 빠질 개연성이 크다는 모순적인 판단으로 귀결된다. 지각 방식들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스피노자는 이 지각에 “오류의 위험이 없다”(§ 28)고 명시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가 아니라, 다만 “어떤 의미에서”(aliquo modo)만 그렇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것이 “우리 완전성을 획득하는 수단은 아니다”(§ 28)라고 유보를 표하는데, 이 유보의 이유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는다. 이후에 첨가한 듯 보이는 각주(주 h)에서 그 이유는 베이컨이 지성에 대해 갖는 경계와 같은 것임이 시사된다. 즉 이 지각 방식은 “확실하기는 하지만, 극도로 경계하지 않으면 충분히 안전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곧장 오류에 빠진다.” 그 이유는 “추상적으로, 분리해서, 그리고 혼동되게 인식하는 것들에다, 다른 더 친숙한 것들을 의미하는 데

36) Gueroult (1974)는 특히 p. 599의 note 23에서 이에 대한 그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태양의 크기 자체는 알지 못한다. 아울러 위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각의 본성과 시각에 나타나는 크기의 특성 외에도 우리와 태양과의 거리 자체 역시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대개 소문을 통해 알려진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를 명시하지도 않았으므로, 내가 보기에 이 사실만으로 스피노자의 유보적 태도가 해명되지는 않는다.

37) Rousset (1996)을 참조하라.

38) 『성찰』, 3성찰 (데카르트, 1997, pp. 62-63: AT VII, 39); 「세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 (데카르트, 2012, pp. 139-140: AT VII, 184)

사용하는 이름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추상적 인식에 대한 이런 우려는 경험적 보조물 필요성과 더불어 논고의 후반부에서도 나타난다. 스피노자는 사물들이 근접인을 통해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추상적 인식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93, § 99), 우리 관념을 실제적인 존재자들의 계열로부터 도출하되, “가변적인 독특한 사물들의 계열”이 아니라 사물의 “내밀한 본질”이 새겨져 있는 “고정되고 영원한 사물들”로부터 도출해야 한다고(§ 100) 강조한다. 아울러 독특한 사물들을 인식하기 위해 감각을 사용할 줄 알게 하고 실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물의 필요성(§ 103)을 강조하기도 한다. 미니니³⁹⁾나 오프레⁴⁰⁾가 말하듯, 이 논고의 전반부가 주로 베이컨적 영감 하에 집필되고 후반부가 데카르트적 영감 하에 집필되었다고, 따라서 스피노자가 이 논고 내부에서 베이컨적 준거에서 데카르트적 준거로 진화해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논고의 후반부에서도 베이컨적 준거는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논의 전개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사실 위 대목들은 인식의 규칙과 순서가 연역적 방법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중에 돌연 출현한다. 인식의 규칙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의의 조건이(§§ 91-98), 순서와 관련하여 “만물의 원인이 되고 그 표상적 본질이 또한 우리 모든 관념의 원인이 되는” 존재자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이(§ 99) 논의된 후, “고정되고 영원한 사물들”이 언급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단초조차 제시되지 않는다. 한편, 보조물에 대한 보다 실질적 논의는 다음으로 미뤄지며, 논고의 후속 부분에서도, 그리고 『윤리학』에서도 다시 다루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스피노자가 베이컨처럼 지성의 추상성을 경계했다고 해서, 지성에 대해서도, 이 논고의 주제인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철학적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위에서 나타나는 비밀관성은 베이컨주의가 단순히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형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39) Mignini (2007), p. 40.

40) Auffret(1992). 그에 따르면, 지각 방식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상상(imaginatio)’이라는 용어의 도입을 기준으로 『지성 교정론』 집필에 대체로 § 74를 축으로 적어도 두 층이 있다.

2. 베이컨주의에 대한 비판적 거리: 방법과 지성의 관계

(1) 방법의 요체: 반성적 인식

먼저 베이컨의 방법 이론을 간략히 요약해보자. 베이컨에 따르면 자연의 해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경험으로부터 공리들을 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들로부터 새로운 실험을 연역하는 것이다. 귀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전자이며,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상상에 물 들지 않은 정제된 경험들을 지성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찰과 실험의 사례들을 수집하여 비교 대조하는 일, 둘째, 지성이 이 사례들을 다룰 수 있도록 표를 수립하는 히스토리아(*historia naturalis*)⁴¹⁾의 작업, 마지막으로 이로부터 지성이 공리를 도출할(*inducere*) 수 있도록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보조물의 역할은 베이컨의 생각과 가깝다.

우리에게 우리 감각들을 사용할 줄 알게 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사물을 규정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실험을 특정 법칙들에 따라 그리고 순서대로 실행하게 하여, 이 법칙들로부터 마침내 이 사물이 과연 어떤 영원한 사물들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졌는지를 결론내리게 하고, 그 사물의 내밀한 본성이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 (§ 103)

여기서 “감각들을 사용할 줄 알게 한다”는 것은 관찰의 방법을 의미하며, ‘실험’(*experimentum*)은 스피노자가 말한 두 번째 지각 방식의 “무작위적 경험”과 대비되는 통제되고 조직된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내밀한 본성”은 베이컨이 히스토리아를 통해 도달하는 사물의 ‘형상’에 상응한다. 특히 히스토리아의 방법은 이후 『신학-정치론』 7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될 것이

41) ‘자연사’나 ‘박물학’으로 번역되는데서 시사되듯, 여기서 ‘*historia*’는 사실에 대한 탐구, 사실들에 대한 기록과 기술, 이야기 등 흔히 ‘역사’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보다 넓은 뜻을 지닌다. ‘역사’라는 번역어는 오해의 소지가 크고, 마땅한 다른 번역어를 찾기 힘들어, 이 글에서는 일단 ‘히스토리아’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고대 그리스부터 스피노자에 이르기까지 히스토리아의 의미와 스피노자 철학에서 히스토리아의 여러 의미 및 방법으로서의 히스토리아에 대해서는 박기순 (2006), 조현진 (2013)을 참조하라.

다. 이런 적극적 태도는 앞서 인용한 1666년 보우메스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표현된다. 거기서 스피노자는 정신의 본성을 “적어도 방법이 요구하는 만큼은 이해하려면, 그것을 제 1원인을 통해 인식할 필요는 없고,” “단지 정신의 혹은 지각의 히스토리아를 베이컨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수립해보는 것으로 족하다”⁴²⁾고 말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서는 보조물이 **방법의 요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조물에 대한 논의를 생략할 수 있었다. 방법의 요체는 편지 37의 가장 완결된 정식화에 따르면, “상상과 지성을, 곧 참된 관념과 여타의 관념들, 허구적 관념, 거짓 관념, 의심스러운 관념, 한 마디로 말해 오직 기억에만 의존하는 모든 관념들을 구별”하고, 그리하여 “순수 지성과 그 본성, 그리고 그것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논고에서도 참된 관념을 허구적 관념과 거짓 관념, 그리고 의심스러운 관념과 구별하는 데만 전체의 절반 (§§ 50-90)이 할애되고 있다. 그리고 지성의 본성과 법칙을 제시하는 대목에서 논고는 미완으로 끝나고 있다. 방법의 요체를 이와 같이 바라보는 데에는 첫째, 우리가 이미 어떤 식으로든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방법은 이 관념에 대한 **반성적 인식**에 불과하다는 것, 셋째 이 인식으로부터 지성의 **내재적 규칙**이 제공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방법의 요체에 대한 인식 차이는 지성에 대한 관점 차이, 그리고 지성과 방법의 관계에 대한 관점 차이로 소급된다. 그리고 이는 “지성의 교정”이 스피노자에게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지 시사해줄 것이다.

(2) 방법의 내재성과 지성의 자기 교정

스피노자가 편지 2에서 요약했듯, 베이컨에게서 지성은 습관적인 인상에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리로 날아오르려는 성급함을 지니고 있어,⁴³⁾ 이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외적으로 강제해야 한

42) 편지 37 (G IV, 189).

43) “지성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생적 운동에 내맡겨질 경우, 지배되고 방비되지 않으면 공리들을 만들어내는 데 무능하고 부적합하다.”(『신기관』, 2부, 10항)

다.44) 이와 같은 지성의 결합은 인식의 도구 혹은 보조물로서의 방법을 요청한다. 다른 한편, 자연 혹은 사물의 본성은 기예에 의해 들볶일 때 더 가까이 스스로를 드러내므로, 지성에 제공되어야 할 자연은 “자유롭고 풀린” 자연이 아니라 “강제되고 억박질러진”[*constrictae et vexatae*]⁴⁵⁾ 자연이다. 지성에는 “그것이 작업할 적절한 재료가 제공되어야”⁴⁶⁾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성을 강제하고 다른 한편 지성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도구는 수단이 히스토리아의 귀납적 방법이다.

[히스토리아는] 지성이 섭취하는 것들을 소화시키는 데, 그리고 나날의 익숙한 인상에 몰들고 감염되고 결국에는 도착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지성 자체의 나쁜 기질을 고치는[*corrigerere*] 데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들은 지성을 바로 잡고[*rectificere*] 정화하기[*expurgare*] 위한 일종의 준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신기관』, 2부, 32항)

그런데 지성의 이와 같은 불순성 때문에 베이컨에게서 방법은 지성에 **외재적**인 것이 된다. 이 점은 지적 작업과 물질적 작업에 대한 베이컨의 비유에서 잘 드러난다.

「거대한 시작」*Instauratio Magna*에서 베이컨은 지적 작업을 물질적 작업에 비유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해, 그는 돌을 유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조시킨다. 한편으로, 철학을 비롯한 전통 지적 학문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학문들은 “동상처럼 숭배되고 찬양되지만, 움직이거나 전진하지 못한다.”⁴⁷⁾ 이미 말해진 것만 반복해서 말해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대신 단지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반대로, 기계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욱 완전해지고 있다. “애초에 발견될 때 그것들은 대체로 거칠고 서투르고 무정형이었으나, 이후 새로운 힘과 더욱 편리한 배열 및 구축을 획득했고” 등

44) “벤손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맡겨진 지성도,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사물이 완성되는 것은 도구와 보조물들에 의해서인데, 이는 손만이 아니라 지성에도 요구된다. 그리고 손의 도구들이 운동을 촉발하거나 운동을 통제하듯, 정신의 도구들도 지성에게 제안을 하거나 지성을 경계시킨다.”(『신기관』, 1부, 2항)

45) “The plan of the great instauratio”, in Bacon (1960), p. 25.

46) 같은 곳, p. 24.

47) Bacon (1960), p. 8.

등.48) 정지와 진보의 이 커다란 대조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적 도구의 사용 여부이다. 『신기관』의 서문에 제시된 또 다른 유비에 따르면, 지성적 작업에서는 지성의 맨 힘만을 사용하는 반면, 기계학 분야의 일에서는 맨 손을 사용하지 않고 도구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가령 커다란 침탑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하자. 이 일에 맨 손으로 덤비는 것은 미친 것이다. 설령 손의 수를 늘린들, 나아가 “더 연약한 손은 제거하고 오직 강하고 강력한 손만을 이용하면서 선별”하든, 심지어 운동선수들의 의학적 처방을 받은 손이나 훈련된 손, 근육을 이용한다면, 이는 “모종의 이성 및 숙고(*prudentia*)를 가지고 정신나감”을 보여줄 뿐, “도구나 기계 없이는” 이 일은 결코 완수될 수 없다. 지성적인 작업에서도, 개별 정신(*ingenium*)의 수를 늘리거나 협동을 하든, 혹은 탁월성과 예리함을 이용하든, 심지어 변증술로 지성의 신경(*nervos*)을 강화하고자 해본들, 단지 별거벗은 지성이 사용될 따름이며, 이렇게 해서는 커다란 성취를 이뤄 낼 수 없다. 그 자신에 맡겨진 지성은 일반적인 것을 향해 비약하면서 오류에 빠지고(1권, 20항), 역으로 “소박하고 인내심 있는 정신[*ingenium*]일 때”에도, 그것은 “올바른 다른 길을 취하지만 거의 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구나 기계(방법) 없이 맨손(지성)으로 큰 성취를 할 수 없다면, 도구나 기계 자체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이 도구나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다른 도구나 기계가 필요하고 등등이 아닌가? 지성이 이처럼 불완전하고, 그래서 방법이 지성에 앞서 미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돈하여 지성에 제공하고 지성이 이 자료들로부터 공리를 도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성을 이끌어야 한다면, 이 방법 자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마련되는가? 지성 자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지인가?49) 만일 방법이 의지의 소관이라면, 이 의지는 어떻게 참된 길에 들어서는가? 베이컨 자신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성의 일탈적 성향에 대한 우려는 결국 무한 퇴행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48) 같은 곳.

49) 아마도 지성에 대한 방법의 외재성이 편지 2에서 스피노자가 베이컨의 입장을 정식화할 때, 지성과 의지의 이분법 및 의지의 자유라는 관점을 데카르트만이 아니라 베이컨에게도 귀속시킨 이유일 것이다.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스피노자가 인식에 대한 방법의 **선행성** 문제를 다루고 **무한 퇴행**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즉 “진리를 탐구하는 최적의 방법을 발견하려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이 두 번째 방법을 탐구하려면 다른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하고, 등등 이렇게 무한하게 나아가는 것”(§ 30) 말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물질적 도구의 산출 과정에 비유하여 제시한다. “철을 주조하려면 망치가 필요하고, 망치를 가지려면 망치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또 다른 망치와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가지려면 또 다른 도구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무한하게 나아가갈 것이며, 이런 식으로 혹자는 인간에게 철을 주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헛되이도 노력할 것이다.”(같은 곳) 앞서 보았듯, 베이컨 역시 인식 과정을 물질적 작업에 비유했지만, 무한 퇴행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이 점은 마찬가지로 물질적 비유를 사용한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이 비유를 들면서 무한 퇴행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는 선행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인식론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논의와 관련해서는 베이컨과의 차이에만 주목해보자.

우선 스피노자가 무한 퇴행을 어떻게 해소시키는지를 보자.

그러나 인간은 애초에 본유적 도구들을 가지고, 물론 힘들고 불완전하게이긴 하지만, 아주 쉬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것들을 완수한 후에는 다른 더 어려운 것을 덜 힘들여 그리고 더 완전하게 완수했으며, 이렇게 점차적으로 아주 단순한 작업으로부터 도구로, 또 이 도구들로부터 다른 작업과 도구들로 계속 나아가, 마침내 그토록 많고 그토록 어려운 것들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완성해내기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지성도 자신의 본유적 힘으로 스스로 지성적 도구들을 만들고, 이것으로 다른 지적 작업들을 위한 다른 힘들을 획득하며, 이 작업들로부터, 더 나아가 탐구를 위한 또 다른 도구들이나 능력을 획득하고, 마침내 지혜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아간다. (§ 31)

베이컨과 달리 여기서 스피노자는 기계술과 지적 학문의 **동형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 차이는 아니다. 베이컨이 기계술과 맞세우는 지적 학문은 변증술이나 삼단논법을 도구로 하는 과거의 학문이며, 그가 주

장하는 것도 새로운 학문이 기계술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 학문과 기계술 사이의 대립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차이는 지적 작업과 기계적 작업 사이의 동형성의 근거이다.

베이컨에게서 지적 작업과 기계적 작업은 모두 세 개의 항을 필요로 한다. 작업의 ‘주체’와 작업의 ‘대상,’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방법’이다. 한편으로, 물질적 작업(진리 발견) 주체로서의 손(지성)이 있고, 도구(방법)는 이를 보조하고 바로잡는다. 다른 한편, 자원(진리)을 은닉하고 있을 자연이 있고, 도구(방법)는 자연에 고문을 가해서 비밀을 털어놓게 한다. 반면, 스피노자에게서 인간(지성)은 작업(발견)의 주체가 아니며 자연은 자원(진리)을 은닉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실 단 하나의 항이 있을 뿐이다. 물질적(지적) 작업들의 연쇄가 그것이다. 주체가 대상에 작업을 가한다기보다는 **작업하는 활동들의 연쇄**만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시작과 관련하여 무한 퇴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동시에 해소된다. 주체가 작업을 시작한다기보다 작업들 자체가 연쇄될 뿐이라면, 이 연쇄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결정적 답변은 “우리가 이미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단언이다. 우리가 이미 가진 참된 관념이 본유적 도구가 되어, 이로부터 다른 참된 관념이 산출되고, 이 참된 관념들이 다시 도구가 되어 또 다른 참된 관념들이 산출되어 나온다. 이런 구도에서 ‘지성’이란 참된 관념들의 연쇄 자체가 될 것이며, 본유적 도구의 존재만으로 지성의 무한정한 진보는 가능해지고,⁵⁰⁾ 이것이 무한 퇴행을 대체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스피노자에게서 “지성 교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할 수 있다. 우선, 지성이 작업의 주체가 아닌 작업들의 연쇄 자체라면, 지성은 본유적으로 주어진다기보다 산출된다고, 단 참된 관념으로부터 **스스로 산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투박한 도구들이 점점 더 정교한 도구들로 다듬어져 가듯, 참되지만 추상적인 인식은 관념들의 산출 과정을 통해 더 개별적인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인식들로 다듬어져 간다. 이런 의미에

50) “더 나아가기 위해 다른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데 유일하게 요구되는 저 본유적 도구들” (§ 32).

서 지성은 교정된다고, 단 외적 도구의 도움으로 교정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본유적 도구를 통해 스스로를 교정해나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반(反)-방법론의 혐의와 윤리학

이처럼 무한 퇴행의 문제를 지성의 자기 산출과 교정으로 해소할 경우 남은 문제는 방법의 고유한 역할이다. 인식의 규칙들은 결국 인식의 과정에서 내재적으로 주어지므로, 방법은 결국 무용해 보인다. 우선, 본유적으로 주어지는 최초의 도구란 **참된 관념**이다. 나아가 인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 참된 관념 자체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으로 하여금 이 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 역시 방법이 아니라 **관념들의 연쇄** 자체이다. 일단 본유적 도구들이 있기만 하다면, 이 도구로부터 다른 산물을 만들어내고 이 산물이 다시 더 정교한 도구가 되듯이, 어떤 관념의 참이나 거짓은 이 관념으로부터의 연역 결과 자체로써 드러난다. 그 관념이 거짓이라면 연역의 연쇄는 곧장 중단될 것이고, 참되다면 “어떤 중단도 없이 성공적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61).⁵¹⁾ 인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참된 관념이라면, 그리고 정신으로 하여금 이 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 역시 방법이 아니라 관념들의 관계 자체라면, 방법에는 아무 역할도 없는 것이 아닌가? 방법 논고에서 스피노자는 결국 반(反)-방법론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우선 스피노자가 도구의 비유 다음에 스스로 제기한 두 가지 반박⁵²⁾에 대한 답변(§§ 44, 46)은 최소한 그가 반(反)-방법론을 의도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먼저, 좋은 방법이란 어떻게 정신이 주어진 참된 관념의 기준에 따라 이끌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 놓고는 왜 당신은 이를 별도의 추론으로 입증하는가?⁵³⁾ 다음으로, 진리는 스스

51) § 80에서는 의심스러운 관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다.

52) *Violette*는 스피노자는 논고의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발견적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이 반박에서는 다시 “발견된 방법”으로 돌아와 불필요한 문제를 자초한다고 본다(pp. 317-8). 그러나 곧 보겠지만, 스피노자 스스로 제기한 이 반박은 정당해 보인다.

53) 부수적으로, 당신이 잘 추론하고 있음은 또 어떻게 입증하는가, 이 역시 무한 퇴행에

로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왜 당신은 곧장 자연의 진리들을 보여주지 않고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이 가상의 반박에 대해 스피노자는 우선, 방법이 인식 과정 바깥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인식 과정(“원인의 추론이나 원인에 대한 인식”) 자체는 아니라고(§ 37) 한정된 뒤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 자신이 말한 대로 주어진 참된 관념의 기준에 따라 마땅한 질서로 다른 관념들을 획득하는 일은 실상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곧 “어떤 숙명을 통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숙고된 계획을 통해” 수행한다고(§ 44). 곧 인식의 자생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방법은 어쨌든 인식 자체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작업으로 요청된다. 이 작업의 핵심은 앞서 보았듯 참된 관념을 다른 관념과 구별하는 일이다. 반(反)-방법론 여부를 둘러싼 물음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 구별 작업의 의의에 달려 있는 셈이다. 참된 관념을 다른 관념과 구별해보는 작업은 왜 그리도 중요한가?

스피노자가 원용하는 꿈과 각성의 비유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나는 이[참된 관념을 여타의 지각과 구별하고 분리하기]를 여기서 여하간 상세히 설명할 생각인데, 이는 독자들을 매우 필요한 것에 대한 사유에 붙잡아두기 위해서이며, 그 뿐만 아니라 참된 지각과 여타 모든 지각 사이에 있는 구별에 주목하지 않은 까닭에, 심지어 참된 것들에 대해서조차 의심하는 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치 깨어 있을 때 자신이 깨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으면서도, 꿈에서 자신이 확실히 깨어 있다고 믿었으나 —이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이후에 그것이 거짓임을 발견했던 일이 한번 있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깨어 있다는 것 역시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런 일은 꿈과 깨어있음을 결코 구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 50)

곧 꿈과 각성 상태를 구별해보지 않은 사람이 각성 상태에서도 꿈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성 상태를 꿈 상태와, 따라서 참된 관념을 여타의 관념과 구별해 보아야만, 참된 관념은 더 분명히 스스로를 드러낸다. 즉

빠지지 않는가의 문제 역시 제기된다. 그것은 참된 관념에 의해 시작되어야 할 테고, 이것 역시 추론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테고 등등 무한정 나아갈테니 말이다. 이에 대해 스피노자는 진리와 올바른 추론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것은 진리 자체와 올바른 추론뿐이며 나는 잘 추론함으로써 올바른 추론임을 확인하고 입증할 뿐이라고 답한다.

다른 것과의 구별을 통해 참된 관념은 의식되며, 그 결과 다른 관념들을 산출할 때의 기준 노릇을 할 수 있다.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반성적 인식”이며, 이 때문에 위에서 말한 의미의 “지성 교정”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한 가지 남는 문제가 있다. 참된 관념을 다른 관념들과 구별하고, 그럼으로써 참된 관념을 더 많이 의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윤리학』에 따르면, “거짓된 관념이 가진 적극적인 것은 참된 한에서의 참된 것의 현전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4부, 정리 1).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방법과 관련된 『지성 교정론』과 『윤리학』 사이의 가장 심층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논고에서 이미 스피노자는 이 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반박과 답변의 과정에서 스피노자는 이미 다음을 덧붙이고 있다.

자연에 대한 탐문에서, 자연이 마땅한 순서에 따라 탐구되는 일이 드물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편견들 때문인데, 그것들의 원인들은 차후 우리의 철학에서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보여줄 것처럼, 많은 세심한 구별이 필요하며, 이는 아주 고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보여주었듯, 전적으로 가변적인 인간사의 상태 때문이다. (§ 45)⁵⁴

여기서 “편견”은 상상의 힘을 지시한다. 『윤리학』에서 스피노자는 이를 앞서 말한 “거짓된 관념이 가진 적극적인 것”(4부, 정리 1)이라 표현하고, 가령 우리와 태양과의 거리가 200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200보 거리로 상상하는 상황에 비유한다(같은 정리의 주석). 다음으로, “세심한 구별”을 위해서는 정신의 능동성이 필요하다. 곧 정신이 “내 부로부터, 곧 여러 사물들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으로부터 규정되어,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합치하고 차이나거나 대립하는지를 이해하는 것”(2부, 정

54) 그래서 편지 37에서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한 이후, 그런 기획을 위해서는 “꾸준한 성찰과 아주 굳건한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특정한 삶의 규칙을 세우고 잘 규정된 목표를 스스로에게 부과함으로써만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G IV, 189)을 덧붙인다. 이 점은 2016년 2월 말 근대 철학회에서 있었던 지성교정론의 미완성에 관한 필자의 발표 이후 이근세 선생님께서 환기시켜주신 내용이다.

리 29의 주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참된 관념을 의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 혹은 신체가 더 큰 변용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변적인 인간사의 상태”는 『신학-정치론』 서문에 따를 때, 자신의 확고한 결단에 따라 매사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운이 늘 호의적일 수도 없는 인간 조건을 가리키며, 이 때문에 모든 인간이 희망과 공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곧 정념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인간 조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성의 교정은 단지 참된 관념을 다른 관념들과 구별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상상과 정념의 통제라는 윤리학의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상과 정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꿈과 각성의 구별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스피노자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각 지각의 본질을 설명하지도, 각 지각을 그 근접인을 통해 설명하지도 않을 것”(§ 51)이라 말하고 그것을 ‘철학’의 과제로 돌리면서 허구 관념과 거짓 관념, 그리고 의심스러운 관념으로 논의를 한정하는 것은 이 점을 그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지성의 교정”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러한 윤리학적 문제 설정과의 연속성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지성의 교정”이란, 한편으로 지성의 본유적 도구인 주어진 참된 관념을 다른 관념들과 구별하여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된 관념의 연쇄가 여타의 관념들에 비해 **우위**를 갖도록 하려면 상상과 정념에 대한 통제, 곧 윤리학이 필요하다. 우상에 뒤덮힌 지성의 정화와 교정을 뜻하는 베이컨적 제목 “지성의 교정”은 스피노자에게서 “지성의 자기 교정”이 되고 더 나아가 “윤리학”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IV. 결론

“지성 교정론”은 합리주의 철학, 그 가운데서도 급진적인 주지주의를 견지한 스피노자의 철학에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베이컨에 의해 제기된 ‘방법’과 관련된 일반적 토픽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정신, 나아가 지성에 뿌리 깊은 편견의 성향을 치유해야 한다는 베이컨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유하고자 한 스피노자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인식론의 문제를 윤리학으로 포괄하는 『윤리학』의 문제의식과의 연속성을 확보해주는 것이기도 함을 주장하였다. 다른 철학자들도 그렇지만, 이 사실은 경험론 대 합리론이라는 통상적 분류가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잘 들어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보다 완결된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베이컨 사상의 전유가 『윤리학』의 지성 개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루어야 하지만, 이는 별도의 지면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

투 고 일: 2016. 04. 22
심사완료일: 2016. 05. 21
계재확정일: 2016. 05. 21

김은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 박기순. 2006. 「스피노자에서 방법으로서 히스토리아(historia) 개념」. 『근대 철학』 1: 5-30.
- 조현진. 2013. 「스피노자의 히스토리아 개념과 그 윤리적 기능」. 『철학논집』 32: 71-92.
- 데카르트, 르네. 1997.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방법 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 출판사.
- _____. 1997. 『성찰·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 출판사.
- _____. 2012. 『‘성찰’에 대한 학자들의 반론과 데카르트의 답변』. 원석영 옮김. 서울: 나남.
- 마슈레, 피에르. 2004. 『헤겔 또는 스피노자』. 진태원 옮김. 이제이 북스.
- Akkerman, F. 1987. “La latinité de Spinoza et l’authenticité du texte du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Revu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théologiques* 71: 23-30.
- Auffret-Ferzli S. 1992. “L’hypothèse d’une rédaction échelonnée du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de Spinoza”, *Studia Spinozana* 8: 281-94.
- Bacon, Francis. 1960. *The New Organon*. ed. by F. H. Anders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라틴어 원전: <http://www.thelatinlibrary.com/bacon.html> 을 참조]
- Deleue, Didier. 1997. “Spinoza, lecteur de Bacon: comment réformer l’entendement?”, *L’enseignement philosophique* 6: 15-22.
- Eisenberg, Paul D. 2001. “How to Understand De Intellectus Emendatione”, Loyd G. ed. *Spinoza. Critical Assessment*, vol. I, pp. 317-40 [(1971).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9: 171-91]
- Goursat, Juliette. 2006. “Les aides de l’entendement chez Bacon et

- Spinoza” in Chantal Jaquet et Tamás Pavlovits ed. *Les faculté de l'âme à l'âge classique*.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pp. 117-31.
- Gueroult, Martial. 1974. *Spinoza, t. II, L'âme (ÉthiqueII)*. Paris: Hildesheim, Georg Olms.
- Joachim, Harold H. 1940. *Spinoza's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A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lever, W. 1987. “Remarques sur le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Experientia vaga, paradoxa, ideae fictae)”, *Revu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théologiques* 71:101-113.
- Matheron, Alexandre. 2011a. “Modes et genres de connaissance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paragraphes 18 à 29)” in *Etudes sur Spinoza et les philosophies de l'âge classique*. Lyon: ENS Editions, pp. 467-529.
- _____. 2011b. “Pourquoi le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est-il resté inachevé?” in *Etudes sur Spinoza et les philosophies de l'âge classique*. Lyon: ENS Editions pp. 541-551.
- Mignini, Filippo. 1987. “Données et problèmes de la chronologie spinozienne entre 1656 et 1665”, *Revu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théologiques* 71: 9-22.
- _____. 1997. “Les erreurs de Bacon sur l'intellect”, *L'Enseignement philosophique* 47: 23-30.
- _____. 2001. “Spinoza's Theory on the Active and Passive Nature of Knowledge” in Loyyd G. ed. *Spinoza. Critical Assessment*, vol. I, pp. 291-316 [(1986). *Studia Spinozana* 2: 27-57].
- _____. 2009. “Introduction au *Tractatus de Intellectus*

- Emendatione*”, trad. en français par Lorenzo Vinciguerra, in *Spinoza Œuvres. I. Premiers Ecrits*. Paris: PUF.
- Rousset, Bernard. 1996. *Spinoza, lecteur des “Objections” faites aux “Méditations” de Descartes et de ses “Réponses”*, Paris: Kime.
- Sánchez Estop, Juan Domingo. 1987. “Spinoza, Lecteur des *Regulae*. Notes sur le cartésianisme du jeune Spinoza”, *Revu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théologiques* 71: 55-66.
- Spinoza, Baruch. 1925. *Spinoza Opera*, 4 vols, Carl Gebhardt, ed. Heidelberg: Carl Winter.
- _____. 1964.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in *Spinoza. Œuvres I*. Trad. et ed. par Charles Appuhn. Paris: GF Flammarion.
- _____. 1985.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Trans. by E. Curl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Trad. et commentaire par B. Rousset. Paris: Vrin.
- _____. 1994.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Trad. et ed. par A. Koyré. Paris: Vrin.
- _____. 1998. *L’Ethique*. Trad. par B. Pautrat. Paris: Seuil.
- _____. 2009.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in *Spinoza Œuvres I. Premiers Ecrits*. Texte établi par Filippo Mignini et trad. par Michelle Beyssade. Paris: PUF.
- Steenbakkers, Piet. 1994. *Spinoza’s Ethica from manuscript to print*. Elinkwijk, Utrecht, The Netherlands: Van Gorcum.
- Violette, R. 1977. “Methode inventive et methode inventée dans l’introduction au ‘De intellectus Emendatinoe’ de Spinoza”,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167-3, [Spinoza (II)]: 303-322.

ABSTRACT

“*Ementatio intellectus*” and
Spinoza’s Baconianism*

Kim, Eun-Ju

This article is devoted to the problematic title of Spinoza’s unfinished early writing *De emendatione intellectus*. The expression “*emendatio intellectus*” appears to be contradictory, given that the Latin word ‘*emendare*’ primarily means ‘correct,’ while the intellect in Spinoza’s philosophy is the organ of truth or is even identified with true ideas themselves. I argue that the title of ‘*emendatio intellectus*’ is not simply indicative of the immaturity of Spinoza’s early thought but is a mark of the positive appropriation of Baconian thought, which places stress on a concrete understanding of singular things, guarding against abstract operation of the intellect. Moreover, the idea of emendation is also extended, I argue, to the ethical treatment of epistemological questions in Spinoza’s *Ethics*. I furnish thus with philological, historical and systematical reasons the suggestion to substitute “improvement” for the translation of ‘*emendatio*’ with “correction,” although this does not agree with Spinoza’s own thought.

Subject Class: Modern Philosophy, Epistemology, Ethics

Keywords: intellect, emendation, Bacon, idol, method, ethics

* Research support for this work was provided by the Institute of Philoso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